

현대·기아차, '차체 협력사 품질확보 상생세미나' 개최

“협력사와 손잡고 차체 품질 향상 나선다”



현대차·기아자동차는 10월 31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롤링 힐스에서 생산기술·품질·구매부문 주요 관계자들과 1차 협력사 대표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체 협력사 품질확보 상생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생산개발본부 주관으로 ‘품질경영 및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강화’를 목표로 개최됐으며, 특히 ‘불량률 0’ 달성을 목표로 현대차·기아차의 품질력 향상을 위한 다

양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차체부품 품질 확보과정 매뉴얼 구축 및 전수와 부품 및 생산공정 품질 확보를 통한 상생방안 토의 등 글로벌 판매 증가에 따른 품질 안정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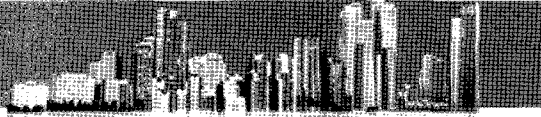
이번 세미나에서 현대차·기아차는 무결점 용접품질 확보를 위한 최신 용접 설비시스템인 ‘차체 하이비스 시스템’(HIVIS)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세미나에 참가한 1차 협력사들도 실제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사례들을 분석,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공유하는 등 소재·프레스·용접 등 제품 생산 전 공정의 품질확보방안 및 진행상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현대차·기아차는 ‘차체부품 품질확보 프로세스 매뉴얼’을 구축, 차체 부품 개발 및 양산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협력사들의 글로벌 품질 및 원가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전과 오후에 걸쳐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최근 협력사들의 품질혁신 성공사례와 신기술·신공법 등을 소개하는 순서를 마지막으로, 현대차·기아차와 협력사들이 상생 품질경영을 위해 함께 뜻을 모으자는 결의로 마무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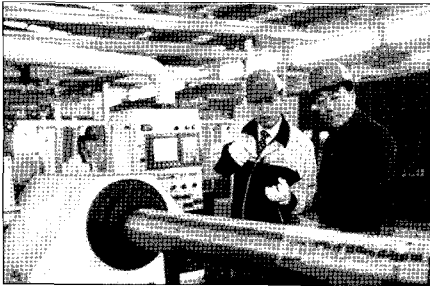
현대차·기아차 관계자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의 현대차·기아차의 비약적인 성장이 지속되려면 최상의 품질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품질은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자존심’임을 직시하고 ‘품질 불량률 0’ 달성 등 전 세계 고객들에게 최고의 차를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에도 현대차·기아차는 협력사들의 글로벌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협력사 차체부품 품질관리시스템’을 개발 및 전수하고, 협력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품질확보 프로세스 매뉴얼 및 공정·생산관리 기법 등을 교육하는 과정을 운영하는 등 협력사들의 품질·원가경쟁력·기술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펼칠 계획이다.



두산인프라코어, 중국서도 현지 진출 협력업체와 동반성장

협력회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해 품질제고 프로그램 및 직원교육 지원 강화



두산인프라코어 경영진은 11월 3일, 중국 산둥성 옌타이 공장 인근에 동반 진출한 협력회사들을 방문해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협력회사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가졌다.

두산인프라코어 김용성 총괄사장은 2001년 동반 진출해 10년째를 맞은 동양기전과 다보정밀을 방문해 “과거 10년 동안 중국에서 회사의 실적은 10배 상승했다”며

“동행한 협력회사들 덕분이며, 앞으로도 윈-윈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반성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두산인프라코어는 협력회사와 동반진출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동양기전은 최근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 장쑤성 쑤저우에 제2생산기지를 세움에 따라 인근에 함께 진출했고, 다보정밀은 브라질 동반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번 방문에서 협력회사로부터 품질경쟁력 강화활동인 SD(Supplier Development; 협력회사 육성) 프로그램의 지속 추진과 직원역량 강화교육 지원 등의 요청을 받고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협력회사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그 동안 경쟁력 공유 프로그램 운영과 해외시장 동반진출 지원을 통해 협력회사의 경쟁력 강화 활동을 전개해왔다.

현대모비스, 협력사와 '아시아 부품 로드쇼' 개최

협력업체 20개사 동반 참가·한국산 자동차부품 우수성 알리고 산업계 파트너십 공고



현대모비스는 10월 28일, 일본 스바루를 시작으로 11월 2일에는 마쓰다, 11월 24~25일 중국 길리자동차를 연속 방문해 친환경·안전·제동·램프·전장 등 한국 자동차부품사들의 주력상품을 선보이는 부품 기술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아시아 부품 로드쇼'는 대표적 보수시장으로 꼽히는 일본시장이 최근 지진여파로 인한 자동차 부품 공

급망 다각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관련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동시에 2020년 4억여 명 이상의 중산층이 형성될 것이라 예상되는 중국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부품의 우수성을 알려 아시아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기 위함이다.

이처럼 현대모비스가 협력사와 동반으로 해외 부품 로드쇼를 진행하는 이유는, 실제 중·소 협력사들의 경쟁력 증진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해외 수출처 확보를 도와 한층 발전된 동반성장을 이뤄내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현대모비스는 부품 협력사들의 수출 수요처 확보 지원을 위해 2002년부터 부품 협력사들과 함께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 '해외 수출 부품 로드쇼'를 개최해왔으며, 이 결과 동양 피스톤 등 로드쇼 참여 부품 협력사들이 크라이슬러를 비롯한 해외 우수 자동차 업체로부터 부품 수주 실적을 올리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아시아 부품 로드쇼에서 현대모비스와 협력업체들이 선보인 제품은 전장·친환경·제동·안전 등 총 110여 가지 핵심 품목으로, 함께 참가하는 주요 협력사는 명화공업, 유라코퍼레이션, 서한산업 등 총 20개사이며, 협력사들이 선보이는 엔진·변속기·조향 등의 주요 제품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는 현대·기아차의 경쟁력을 견인하고 있는 부품들이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아시아 부품 로드쇼를 통해 기존 고객인 스바루·길리자동차와 새로운 잠재 고객인 마쓰다사에 멀티미디어, 메카트로닉스, 제동 등의 핵심부품과 전기차 모터·인버터 등의 친환경 부품의 특징과 장점을 기술적으로 소개하고 향후 추가수주와 신규고객 확보에 힘쓰는 한편, 협력사의 해외 진출에도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모비스의 해외사업본부 이준형 부사장은 "이번 행사는 협력사들의 부품 수출을 도모하고 적극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열린 만큼 실제 수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대모비스는 자동차부품 리딩기업으로서 협력사와의 해외 동반 진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SK, 다양한 협력모델로 글로벌 성장 가속화

CEO세미나 개최·글로벌 성장 강화방안과 동반성장 확대 등 논의



SK그룹이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장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다양한 협력 방식을 통한 글로벌 성장 모델을 적극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중소 협력업체와는 상생을 넘는 '성장 파트너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그룹 단위 경영뿐만 아니라 각 사 경영에 반영키로 합의했다.

SK그룹은 10월 26일부터 2박3일 동안 최태원 회장 등 그룹 내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용인 SK아카데미에서 CEO세미나를 열고, 글로벌 성장 강화방안과 동반성장 확대 등에 논의한 뒤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CEO세미나에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SK 주요 경영진 30여 명이 참석했다.

SK 경영진들은 각 계열사의 자율·책임경영의 기반 위에 글로벌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패키지딜(Package Deal)과 파트너링(Partnering) 등과 같은 다양한 협력모델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패키지딜은 SK 각 계열사가 갖고 있는 고유한 역량을 한데 모아 대형 플랜트 사업 등 글로벌 사업을 수주하는 방식이고, 파트너링은 SK가 글로벌 메이저 플레이어와 함께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방식으로, 최태원 회장이 최근 글로벌 현장에서 이 같은 협력모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CEO세미나에서 “올 초부터 브라질, 호주,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등 글로벌 사업 현장을 체험해 본 결과, SK 각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강점을 협력모델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할 경우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글로벌 사업 환경이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우리의 글로벌 사업 모델도 융복합화 또는 세분화 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 경영진들은 이와 함께 이번 CEO세미나의 또 다른 주제인 ‘동반성장’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개별 대기업의 경쟁우위 만으로는 본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협력하는 ‘기업군’ 단위의 경쟁우위, 즉 ‘동반성장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SK그룹은 대·중소기업간 건전한 생태계 조성, 동반성장 소통 활성화 등 동반성장 인프라 확충, 협력업체와의 글로벌 진출 확대 등 전통적인 협력관계의 강화는 물론이고, 각 계열사별로 미래 경쟁력을 확보 차원에서 중소 협력업체들과도 파트너링 방안을 찾아 나가기로 했다. SK(주) CPR팀 이만우 전무는 “이번 CEO세미나는 최태원 회장부터 CEO, 임직원 등 전 구성원이 참여한 가운데 글로벌 성장에 대한 강력한 공감대 형성은 물론 실효성 있는 방안이 제시된 의미 있는 기회였다”면서 “특히 협력업체와는 상생 수준을 넘어 글로벌 성장 파트너로 구동존이(求同存異)형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였다”고 말했다.

LG디스플레이, 국내외 협력회사와 '일등상생 공유회' 행사 개최

“협력회사의 경쟁력이 곧 회사의 경쟁력”



LG디스플레이가 국내외 협력회사 대표들을 초청해 ‘협력회사의 경쟁력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라는 LG디스플레이의 상생철학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자리를 가졌다. LG디스플레이는 10월 26일, 구미공장에서 회사 주요 경영진과 국내외 60여 개 협력회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등상생 공유회’ 행사를 개최해 ‘우수 상생 사례’와 ‘2012년 일등상생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World’s

No.1 협력회사’ 인증서 수여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우수 상생 사례’로는 PEG(파주전기초자), 희성전자, 뉴옵틱스, DNP, LG이노텍의 사례가 소개되었으며, 행사에 참석한 협력회사들은 이들 사례에서 배울 점과 노하우를 경청하고, 이에 대한 협력회사 상호간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LG디스플레이는 또한 ‘중점 가치(Big Value) 과제 집중’, ‘개발 상생 강화’, ‘자율 상생’ 및 ‘협력회사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2012 일등상생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협력회사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물론 LG디스플레이와 협력회사가 서로 윈-윈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자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하게 다졌다.

특히, LG디스플레이는 ‘개발 상생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생산현장에서 개발 현장으로의 집중’이라는 슬로건을 정하고, 제품 개발 초기단계부터 협력회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협력회사의 개발 관련 기술 및 노하우가 효율적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러한 공동 프로젝트의 추진을 통해 연구개발 기간이 단축됨은 물론이고, 연관된 부품 협력회사 간에도 상호협력의 과정에서 부품 수 절감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날 행사에서 LG디스플레이는 지난 1년간 적극적인 상생활동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고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한 행성디지털, LG전자 CEM 사업부, NEG(일본전기초자), LG화학 광학소재 사업부, 우리텍 등 협력회사 5곳에 ‘World’s No.1 협력회사 인증서’를 수여했다.

LG디스플레이 구매센터장 이한상 전무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상생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해 준 협력회사들에 감사한 마음”이라며 “2012년에도 일등상생 활동을 통해, 협력회사의 근본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남석유화학 '동반성장 성공모델' 구축 행보 가속화

신용보증기금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출연협약' 체결



호남석유화학은 중소기업과 손을 잡고 금융지원, 연구개발, 기술협력, 구매·판매협력,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소기업 협력사들과 공동으로 다양한 동반성장을 꾀하고 있다.

호남석유화학과 신용보증기금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매지원을 위해, 10월 20일 호남석유화학 본사에서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위한 출연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호남석유화학은 신보에 20억 원을 일시에 출연하고, 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출연금액의 15배인 300억 원의 신용보증을 호남석유화학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게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원 대상을 호남석유화학의 1차 협력업체는 물론 직접거래가 없는 2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게 협약보증의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호남석유화학이 신보에 출연하는 것은 지난 2008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호남석유화학은 그해 12월 대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신보에 10억 원을 출연해 150억 원의 신용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에 나섰다.

협약식에서 정범식 호남석유화학 대표이사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고자 2008년에 이어 두 번째 출연을 결정하게 됐다”며 “이번 출연은 당사 고객뿐만 아니라 고객사의 매출처까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신용보증으로 인한 연간 지원효과가 2,400억 원에 달하는 등 실질적인 상생지원책이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향후 호남석유화학은 동반성장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함께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범식 사장은 10월 28일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플라스틱 필름 및 시트 조업체인 (주)경신산업과 경기도 화성에 있는 자동차, 전자 등 일반산업용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콘즈를 잇달아 방문해 호남석유화학이 시행하고 있는 상생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상생협력 의지를 다졌다.

(주)경신산업은 호남석유화학에서 기술협력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압출기 설비 7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지원 확대로 생산량 증대 및 고부가가치 매출 향상 등의 성과를 이뤘다.

포스코, 8월까지 성과공유 보상금 176억원 지급 통해 공생발전 실천

광양제철소는 광양시·광양상의회와 혁신허브 협약 체결



포스코가 성과공유제를 확대해 중소기업과 공생발전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포스코는 8월까지 성과공유제 보상금으로 176억 원을 지급했고, 연말까지 3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0년 보상금액인 169억 원과 비교할 때 대폭 늘

어난 수준이다.

성과공유제는 포스코에 제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이 수명 향상, 원가 절감, 수입품목 국산화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공동과제를 수행해 발생하는 수익을 공유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포스코 동반성장의 대표 정책으로, 2004년에 도입됐다.

작년 12월에는 성과공유제 참여대상범위를 1차 협력기업에서 2·3차 협력기업으로 확대해 중소기업과 주요 자재에 대해 활발한 개선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단기성과공유(Quick Benefit Sharing) 제도를 마련해 시제품 테스트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기존 8단계에서 4단계로 절차를 대폭 축소했다. 절차 간소화에 따라 소요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개월로 줄여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포스코는 중소기업과의 공동 개선활동 성과에 대해 3년간 현금보상하고, 최대 3년까지 장기계약권을 부여하고 있다. 개선과제를 위한 시제품 생산과 현장적용에 따른 비용 역시 포스코가 지원해 중소기업의 투자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과제 수행 전 베네핏 셰어링(Benefit Sharing) 과제협약을 통해 경쟁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제안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것을 차단해 기술유출 문제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있다. 성과배분율에 대해서도 상호협의를 통한 신뢰를 조성해 중소기업에 적극적인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금전적 보상 이외에도 자율적인 체질 개선과 기술개발을 도모할 수 있고, 포스코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포스코의 성과공유제는 국내 대·중소기업간 대표적인 동반성장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편,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10월 31일 광양시·광양상공회의소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동반성장 혁신허브'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광양시청에서 열린 이날 협약 체결식에서 김준식 광양제철소장과 이성웅 광양시장, 김효수 광양상공회의소장은 앞으로 광양지역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앞으로 광양제철소는 중소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혁신활동, 변화관리 교육, 안전, 기술지원 등 경영 전반을 지원해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우수 참여기업에는 우선공급의 혜택과 포스코 고유의 52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혁신교육 수료기업에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현장 멘토링을 실시해 자생력을 높이도록 돕게 된다.

포스코 패밀리, '공정거래 준수 마인드 확산' 워크숍 개최



포스코패밀리 차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공정거래 워크숍이 10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전북 무주 덕유산리조트에서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포스코 각 부서의 공정거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 실천리더를 비롯해 공정거래 자

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포스코건설, 포스코특수강 등 출자사 공정거래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참석자들은 공정위 대구지방사무소장으로부터 공정거래법 전반에 대한 강의와 법 위반 사례에 대한 강의를 듣고, 참석자들의 궁금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공정거래법상의 공시제도 및 공정위의 공시점검 현황과 공정거래 정책동향 등에 대한 공정거래지원팀의 설명이 있었으며, 출자사들은 회사별 CP 운영현황, 하도급법 점검현황 등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후에는 참석자들 간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향후 포스코는 공정거래실천리더와 출자사 공정거래 담당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워크숍과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두산건설, 우수협력사와 동반성장 워크숍 개최

“미래지향적 동반자 마인드를 다져 나가자.”



두산건설은 10월 13일부터 이틀간 춘천 라데나리조트에서 '동반성장 및 공생발전을 위한 우수 협력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3년째를 맞은 협력사 워크숍에는 두산의 우수 협력사 대표 32명을 포함한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그동안 축적한 동반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다지고, 건설업 위기 극복에 필요한 동반성장 및 발전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자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기동 두산건설 사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인류문명과 기술의 발전'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건설기술의 발전과정과 미래 발전방향을 소개하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함께 하는 미래지향적 동반자 마인드를 다져 나가자"고 강조하기도 했다.

● LG전자, 2차 협력회사와 동반성장 속도 낸다

‘LG전자 상생협력펀드’ 1250억원 가운데 250억원 지원

LG전자가 2차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LG전자는 IBK기업은행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LG전자 상생협력펀드’ 1,250억 원 가운데 250억 원을 2차 협력회사의 자금 지원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LG전자 상생협력펀드’는 지난 5월, 1·2차 협력회사들과 가진 ‘LG전자 Camp 동반성장 결의식’에서 발표한 협력회사 지원 방침 가운데 협력회사 금융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LG전자는 글로벌 금융 불안과 세계적 저성장 경제 기조 등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진 2차 협력회사들에게 긴급히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LG전자 상생협력펀드는 IBK기업은행과 협력회사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펀드로, 신용등급에 따라 시중 대출금리보다 최소 1.9%에서 최대 2.4%까지 저렴한 저금리 대출 상품이다.

이 펀드의 만기는 1년이지만 필요한 경우 1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LG전자는 9월 초부터 2차 협력회사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IBK기업은행에서 신용등급과 재무상태 적합심사를 거쳐 총 102개 회사들을 선정해 지원을 시작했다.

LG전자는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혁신파트너십 사업, 지역 대학과 연계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 사회적 책임 컨설팅, 환경 컨설팅 등 2차 협력회사를 위한 지원을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하고 있다.

생산, 제조, 물류, 생산성관리 시스템 등 제조공정 전반에 걸쳐 생산성 혁신을 지원하는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혁신파트너십 사업’을 1차 협력회사에서 2차 협력회사까지 대상을 늘렸다.

이 사업에 따라 LG전자는 올해부터 1·2차 협력회사 20개를 선정해 사내 전문가를 협력회사에 파견해 수 개월간 상주하며 직접 생산성 향상을 돕고 있다.

또한 LG전자는 창원대 등 대학들과 연계해 품질관리, 6시그마 등 생산성 강화 교육과 어학,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개인 역량 교육 과정 20여 개를 마련한다.

올해 안에 2차 협력회사들을 추가하고 이 과정을 진행한다.

1차 협력회사 중심으로 진행해 오던 유해물질 대응 교육을 기후변화 주제도 포함한 ‘LG전자 그린프로그램 플러스’(LGE Green Program Plus)로 확대 개편해 올해부터 2차 협력회사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 컨설팅 및 교육을 2013년까지 2차 협력회사로 범위를 넓히고, 협력회사들이 사회적 책임 활동의 국제기준과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앞으로 2차 협력회사들이 경영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지원책도 다양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전자, '협력사 동반성장 워크숍' 개최

협력사가 글로벌 초일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토론



삼성전자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강원도 원주 한솔오크밸리에서 삼성전자와 협력사의 보다 발전적인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2011 삼성전자·협력사 동반성장 워크숍' 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협력사모임인 협성회 소속 협력사 대표 180여 명과 삼성전자 최지성 대표이사 등 삼성

전자 경영진 및 관련 임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동반성장 협약 체결,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등 삼성전자가 올해 추진해온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에 대해 삼성전자와 협력사가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가 마련됐다.

동반성장 분야의 교수들과 협력사 대표들이 참석한 '상생 포럼'에서는 '중소협력사의 기업진화 유형별 특성'을 주제로 서울여대 이종욱 교수가 발표했으며, 패넬간 토의가 벌어졌다.

특히 삼성전자와 협력사가 진정한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해 협력사가 글로벌 초일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도 진지한 토론이 벌어졌다.

최지성 부회장은 "협력사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경쟁력을 확보한 협력사와는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반성장의 온기가 1차 협력사는 물론, 2, 3차 협력사까지 퍼져야 한다"며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의 대금지불에 신경을 쓰는 등 관심을 가져야 진정한 동반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협성회장인 이세용 이랜텍 대표는 "삼성전자 협력사들이 삼성전자와 동반자 인식을 갖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삼성전자와 협력사가 끈끈한 스킨십을 통해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함께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동반성장 한마음 산행'도 원주의 당산에서 진행됐다.

삼성전자는 올해 협력사에 대한 직접 지원뿐 아니라 협력사와 소통의 활성화를 위해 경영진이 직접 협력사를 방문하는 '동반성장 데이'와 '동반성장 간담회'를 가졌다.